

2022 복현1동 도시재생

# 청년 서포터즈

# 뉴스레터



대구 북구 복현1동의 복현어울림센터에서 지난 9월 29일 1시부터 5시까지 복현어울림마을축제가 열렸다. 본 행사는 복현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사회적기업 메시지팩토리가 기획한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다. 주민 노래자랑, '엄마밥집', '풍년상회', '복현주민오락관', '복현 공방', '어울림카페' 부스 운영, 원예체험, 보건소의 출장 건강체크, 현장 지원센터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전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 되었으며 복현1동 마을과 사람을 잇는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CONTENTS

- 1~5 복현어울림마을축제
- 6~10 대구 지역 축제현장을 가다
- 11~16 복현1동 도시재생 소식함



엄마의 마음에 누나의 마음까지 더해 차려낸 밥상

# 엄마밥집



축제 현장에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입구 가장 가까이 자리잡은 '엄마밥집' 부스의 분위기는 이른 아침부터 요리를 하느라 어수선하다. 큰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다. 금방 물에 삶겨 통통한 어묵과 예쁜 박스에 포장된 알록달록한 떡 등이 보기 좋게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다. 축제가 시작되자마자 한바탕 몰려온 손님들이 물러간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엄마밥집'의 강옥희 이사를 만나보았다.

## Q. 오늘 행사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A. 코로나 끝 무렵에 열리는 마을 축제니까 그동안 못 본 어르신들이랑 동네 사람들 얼굴도 보려고 참석하게 되었지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이랑 같은 동네 사람들 축제하는 동안 밥 한 끼 대접하고 음식도 나누려는 마음으로 준비했지요.

## Q. 엄마밥집 부스를 소개해 주세요

A. 우리는 마을에서 '엄마 밥집' 활동을 하고 있어요. 축제는 종일 하니까 배도 고프고 뭐니뭐니 해도 먹을거리가 있어야 푸근하잖아요. 구경하다가 배고파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오뎡탕이랑 떡을 준비했습니다. 알고 지내는 동네 분들이랑 놀러 오신 분들 모두 음식도 드시면서 행복하게 축제를 즐겨주면 좋겠어요. 축제가 아니더라도 북현1동 마을주민은 물론 인근에 사는 청년들까지 배불리 먹고 싶은 것이 저희 엄마밥집의 바람이에요.

'엄마밥집' 부스에서 시식해 본 한 관람객은 "우리 마을 주민이 직접 준비해서 만들어 준건데 맛이야 당연히 좋지요.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것도 보는 즐거운 행사! 매년마다 열어주세요"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기자 강연정 + 김민기



주민 휴식과 힐링 공간

# 어울림 카페

기자 강준영



북현동 골목에 신나는 노랫소리와 마을 주민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북현 어울림 쉼터에 축제가 한창이다. 이날 열린 북현어울림마을 축제는 북현1동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마을 축제 인터뷰를 위해 사전에 허락받은 어울림 카페 장윤희 이사를 인터뷰했다.

## Q. 어울림 카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는데 북현1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써 운영되는 어울림 축제에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처음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타 카페를 현장답사 하기도 하고 실습을 해보는 등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 Q. 축제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먼저 좋았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민들과 소통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북현어울림마을축제가 다시 열리면서 그동안 못 만났던 주민들과 새로이 이웃이 된 주민들이 모두 함께 인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너무 좋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연령대가 높은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 약간 아쉽다.

## Q. 어울림 축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매년 개최가 되어 이웃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더 충분히 지원되어 축제 운영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Q.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어울림 카페에 대해 홍보하자면

A. 어울림 카페에는 달달한 식혜와 시원한 커피 맛있는 주전부리 등이 있으니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개의 부스 중 가장 뜨거운 열기로 가득찼던 곳! 다채로운 게임과 놀이로 오가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풍년상회를 방문해 보았다.

풍년상회 부스는 가을을 맞이해 대추, 밤, 땅콩 등을 가지고 참여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1분 게임으로는 콩 운반게임, 농산물 받기를 진행했으며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멸치 똥까기를 진행했다. 특히 멸치 똥까기는 3곳의 노인정이 대항전을 펼쳤는데, 어르신들이 게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보여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냈다. 평생 농산물을 익숙하게 다루어 온 내공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자신있게 체험에 몰두하는 모습이였다. 풍년상회 부스의 담당자 최은주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네 주민들과 친근감을 가질 수 있었고, 잘 몰랐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어 좋았다. 앞으로 동네 발전을 위해 젊은 주민들도 많이 참석해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을 열매로 다채로운 게임 즐겨요

# 풍년상회

기자 송세연



가족 작품  
직접 만들어 보세요

# 복현어울림



기자 최정만

가을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던 9월 끝 무렵. 복현1동이 떠들썩하다.

해가 지기 전 오후 5시까지 진행된 본 축제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체험부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그중 복현공방 부스를 지키고 있는 김은정 씨를 만나보았다.

### Q. 축제 부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A. 복현동 피란민촌이 재생지로 선정되었잖아요. 철거하면 사라지게 될 복현동의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 복현타작에 참여하면서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님과 인연이 닿았어요. 복현동에서 마을축제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축제부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공예를 하는 중인데 제가 잘 하는 것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 Q. 축제 부스의 콘셉트가 무엇인가요

A. 가족공예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체험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손으로 한뼘 한뼘 정성을 들여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는 것이 가족공예이다 보니 결과물만 보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콘셉트라 할 수 있지요. 이 부스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축제에는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Q. 가족공방 부스를 준비하며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

A. 축제 당일에 완성되는 가족공예 작품을 체험하게 하자, 직접 만들어서 몸에서 지니고 쓸 수 있게 하자는 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Q. 부스를 운영하며 겪은 어려운 상황과 당시의 극복방법이 궁금합니다

A. 아무래도 혼자서 부스를 운영하다보니 관람객이 많이 오면 버거울 때가 있어요. 보조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명이 한꺼번에 체험하고 싶다 했을 때 응대하거나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벅찼지요.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있으니 다음에는 좀 더 현명하게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 Q. 다른 마을축제와 우리 마을 축제와의 차별점이 있을까요

A.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느낌? 마을축제를 하는지 몰랐던 인근 주민들도 시끌벅적한 소리에 대문 밖을 나와서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 Q.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A. 저는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가 잘 아는 것을 알려주고 소통할 수 있어서 제가 더 즐거웠어요. 마을축제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베푸는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거든요. 이제 또 체험을 하러 오시네요. 축제가 끝나는 시간까지 저도 즐기다 가려고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북현 주민오락관**

북현1동에 자리한 어울림센터에서 북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원들이 개최하는 북현어울림마을축제가 열려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각종 상품과 체험, 놀이가 있는 축제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바쁘다. 붉은 풍선과 붉은 앞치마까지 모든 것이 장밋빛이다. 붉은 파라솔을 따라 걷다보면 모퉁이에 위치한 전통 놀이 부스가 보인다. 훌라후프와 제기차기, 투호 등의 놀이는 익숙하게 다가온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한 번쯤 체험해 본 전통놀이이다. 알록달록한 훌라후프는 열심히 돌리다 보면 두꺼운 물티슈를 상품으로 챙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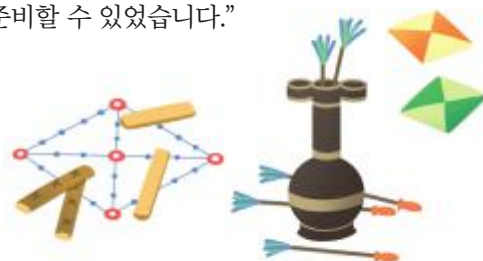
평소 어울림센터에 와 자주 놀던 어린아이는 링 던지기가 신기한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연신 링을 만지고 던지기를 반복한다. 뜨거운 햇살에도 훌라후프는 돌아가고 제기는 실 새 없이 튀어 오른다. 주민 오락관 전통놀이에 어떻게 참여 했냐는 물음에 참가자는 “그냥 상품 주니깐 한번 해보는 거지”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면서도 얼굴은 미소로 가득하다. 축제를 기획한 메시지 팩토리 매니저는 축제 전반에 관해 이런 소감을 남겼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엄선했어요. 훌라후프 돌리기, 투호, 링 던지기, 제기차기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



는 부스를 마련해 누구나 쉽게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축제를 맡아 진행하게 되어 부담이 많았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기획이나 진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 무사히 열리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어느 시장 축제를 맡은 적이 있는데 시장 내에 자리가 합의가 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항상 장소가 축제의 성패를 결정짓는데 북현어울림마을축제는 안정된 장소 지정으로 시작할 때부터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 강연정

# 한눈에 보는 대구 지역 축제



## 대구패션주얼리워크

**일시:** 매년 5월경 / 2022년에는 10월 중순 개최  
**장소:** 패션주얼리특구 일원(동성로~교통일원)  
 전국 유일의 패션주얼리특구가 있는 교동귀금속골목 일원에서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도심형 축제. 대구패션주얼리의 우수성과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중구

## 방천아트페스티벌

**일시:** 2022.10.8.~10.9.  
**장소:** 김광석 다시그리기길  
 대봉동 일원

동구



##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

**일시:** 2022. 10. 15(토)  
**장소:** 동구 지저동(울하체육공원 일대)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에서 매년 지역민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열리는 축제. 지역민을 중심으로 강한 동구 건설을 지원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서구



##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일시:** 매년 9월경  
**장소:** 달성토성둘레길, 달성토성 서문, 달성토성공영주차장 일대  
 매년 달성토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축제. 달성토성 둘레에 살고 있는 비산2·3동 주민들이 직접 가꾼 골목정원을 둘러볼 수 있는 골목투어가 이색적이다.



## 가족사랑 아이스축제

**장소:** 서구 이현동 이현공원어린이물놀이장  
 서구 이현공원 물놀이장에서 개최하는 축제. 물놀이장이라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는 스네그골프를 체험할 수 있으며 이벤트 게임에 참가하여 경품 또한 받을 수 있다.



## 수성못페스티벌

**일시:** 매년 9월경 / **장소:** 수성못 일원, 울루루 문화광장 등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공연 중심 프로그램이 3일간 운영된다.

수성구

## 달서구



### 장미꽃 필(feel) 무렵

일시: 매년 5월경

장소: 이곡분수공원

장미꽃을 주제로 가족 간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하는 축제. 다양한 체험 행사 및 음악회 공연 등 여러 볼거리가 있다.

### 달서가족어울림축제

일시: 매년 10월경 / 장소: 호림강나루공원 일대

여러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 상호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달서구 거주 2인 가족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 퓨전국악축제

일시: 매년 10월경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 달성군

### 달성 100대 피아노

일시: 매년 10월경 / 장소: 사문진 야외상설공연장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처음 들어온 사문진 나루터에서 피아노 100대의 웅장한 공연을 들을 수 있다. 올해는 피아니스트 100명과 인기 대중가수, 성악가들이 무대를 빛냈다.

### 달성군 청소년축제

일시: 매년 9월경 / 장소: 달성군 일대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지역 청소년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축제. 관내 모범 학생 및 청소년 표창이 이뤄지고, 청소년 중심의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

일시: 매년 10월경 / 장소: 호림강나루공원 일대

대구 앞산 아래 빨래터공원, 맛둘레길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 뮤지컬 공연, 성악중창 등 테마 공연을 즐길 수 있고, 도심 속 힐링공간인 앞산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

## 남구



###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일시: 매년 9~10월경

장소: 금호강 산격대교 둔치(산격야영장)

각 동 단 위에서 개최되던 중소 규모의 축제를 통합해 2015년부터 문화 공연과 체험행사 중심으로 진행된다.

### 오페라축제

일시: 매년 9~11월경 / 장소: 오페라하우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대구를 알리기 위해 열리는 장기간 대규모 음악축제. 다른 음악창의도시와 협력해 교류 공연을 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축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 북구



### 북현어울림마을 축제

일시: 2022년 9월 29일 / 장소: 북현어울림쉼터

북구청 주최, 북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북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마을축제이다.

합창단이 주도하는 공연이 함께하는 장터

# 상동풍요로운 마을장터



기자 강준영

10월 1일 토요일 수성구의 덕화공원이 시끌벅적하다.

바로 상동풍요로운마을장터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장터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팔거나 기부하고, 합창단과 밴드 등이 공연을 하는, 이름에 걸맞게 '풍요로움'을 자랑한다.

이날 장터는 2시부터 5시까지 열렸는데 한가한 시간없이 장터가 열리는 내내 사람들로 북적대 인기있는 지역장터임을 짐작케 한다.

이렇게 인기만점의 지역장터를 처음으로 기획한 분은 누구일까.

김현정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 Q. 처음 장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마을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마을을 위해 더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합창단 단원들과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른 마을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장터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우리도 한번 장터를 운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상동풍요로운마을장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터는 다른 장터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장터와 버스킹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시작부터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장터를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 Q. 상동풍요로운장터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어른·아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주민 모두 참여하는 장터입니다. 매회 축제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은 물품들을 기부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가족간 유대 또한 깊어지고 있어요. 장터 운영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힘에 부칠 때가 있고요. 주변 공공기관에서 장소 대여나 그밖에 지원이나 협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상동풍요로운마을장터는 꾸준히 발전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장터가 되어가고 있어서 끝나고 나면 항상 '하길 잘했다'는 마음만 남습니다.





구석구석 골목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는 축제

##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기석)는 9월 24일, 제6회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를 달성토성 둘레길 일원에서 개최했다.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는 시 낭송, 수어노래, 가요교실, 하모니카 교실이 참여한 개막식이 달성토성마을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것을 필두로 소원등 콘테스트·가족 마당극·동요부르는 마을합창단으로 구성된 기획프로그램과 문화공연·주민노래자랑으로 열린 힐링음악회, 정원 골목 투어·아나바다 나눔 장터·체험부스·골목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 등이 마련된 주민 주도의 축제이다. 그동안 꽃이 가장 활짝 피는 4월에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9월에 진행했다.

본 축제에서 무대를 선보인 사람들은 모두 달성토성마을의 주민들로 수어노래는 마을 해설사가 수업하는 마을 프로그램, 가요 교실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다. 달성토성풍물단은 서구 비산 2·3동 주민 20여 명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풍물패로 매주 모여 연습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연을 선보인다. 이처럼 달성토성 마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축제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솜씨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달성토성마을 골목 축제는 관람객이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 모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마을의 주거 계층인 노년층의 기호에 맞는 공연을 진행하거나 식사를 대접해 왔다. 하지만 주민 전체가 즐기는 마을 축제가 아닌 경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반영하여 올해는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처음 시행했다. ‘달성토성 골목놀이-스탬프 미션’은 달성토성마을의 어린이집이 주축이 되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골목마다 옛날 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살아있는 골목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주민 노래자랑에서는 다양한 재주꾼들이 무대를 뽐내 주민들의 흥을 돋웠고, 7살 어린이부터 80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마을합창단은 ‘오빠 생각’, ‘기러기’ 같은 옛날 동요를 선보여 관객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조직위원회 홍보기획팀 이숙현 간사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멋진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서툴지만 마음이 담긴 축제라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대구광역시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에서 우수 마을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기자 송세연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 숨은 볼거리, 축제부스

9월 24일 서구 비산동에서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가 열렸다. 본 축제는 골목 투어로도 유명하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부스가 숨은 볼거리다. 그중의 한 곳인 '현수막 재활용 패브릭공예 가방과 그림아트' 부스 운영자이자 자원봉사자인 이정희 씨를 만나 보았다.



Q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와 관련, 축제 부스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비산동에 거주하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만이 가진 골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경험하거나 체험 부스에서 다양한 축제를 경험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Q

**지금 운영하시는 부스에 대한 콘셉트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A. 동네에서 매년 하는 체험 부스였어요. 비산동 주민들,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올해는 조금 친환경적이면서도 피부로, 손으로,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재활용 체험으로 정해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했어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물건을 다시 쓰자는 콘셉트로 운영 중입니다.

Q

**부스 운영은 주로 누가 하는지요**

A. 비산동 주민들이 각자 서로의 팀을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요. 주민들한테 어떤 걸 체험해 보고 싶은지 물어보고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체험을 해보고, 어떻게 주민에게 가르칠 건지 구상도 하고요. 동네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부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Q

**부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A. 마을축제이니 주민들과의 소통에 가장 신경 썼죠. 어르신, 주민, 아이 등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와서 축제를 즐기고 체험부스에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가는 경험이 소중하잖아요. 부스에서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한 성취감에 공감해 주면서 소통하는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Q

**부스를 운영하며 겪으신 어려운 상황과 당시의 극복방법이 궁금합니다**

A.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실 때는 봉사자나 공간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이 점은 주민들에게 아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홍보 부분에서 쉽지 않았어요. 동네주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체험 부스를 모집하는 부분도 쉽지 않았어요. 모두 시간이 문제인데요. 특정 부스에 관람객이 집중되지 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다른 마을축제와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의 차별점이 있나요**

A. 저는 담당 부스 안의 실무자이고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조직위원회에 따로 있어요. 주민들 중에 리더십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하루 종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최정만

# 주민역량강화사업 흐름

2022



마을협동조합 사업화모델  
실습프로그램  
2022. 1. 14 ~ 1. 21(2회)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조직운영 워크숍  
2022. 4. 29 ~ 5. 9(3회)



복현 외식창업아카데미  
2022. 9. 15 ~ 11. 24(10회)



복현 마을축제학교  
2022. 09. 29(목)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소규모집수리 실습프로그램  
2022. 4. 25 ~ 5. 6(3회)



청년 서포터즈뉴스레터  
2022. 9. 16 ~ 10. 21(4회)



복현 청년 소셜 리빙랩 시즌4  
: 도시재생과 로컬브랜드 개발  
리빙랩 기간 : 2022. 9. 23 ~ 10. 14(4회)



복현타작  
2022. 6월~12월  
8회차 진행

## 외부 공모사업 선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어울림마을 복현'선정  
2022. 3.7 창업팀 선정 협약식  
(대구지역 18개 팀)



영남대 링크사업  
캡스톤디자인  
2022. 3월~6월



대구예술로(路)  
2022. 4월~11월(7개월간)  
지역 예술가 5인과의  
협업활동

복현 청년 소셜 리빙랩 시즌4

# 도시재생과 로컬브랜드 개발



2019년부터 진행했던 복현청년소셜리빙랩이 시즌4를 맞이했다. 도시재생과 로컬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복현1동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였다. 또한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로컬 브랜드 아이디어를 열린 소통과 참여의 과정인 청년소셜리빙랩을 통해 발굴, 수렴하여 지역 브랜드 콘셉트에 대한 제안 및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성을 고찰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자원을 발굴하였다. 청년들의 특독 튀는 아이디어와 인근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지혜가 어울려 획기적인 로컬브랜드가 탄생할 예정이다.

기간: 2022. 9. 23.(금) ~ 10. 14. (금) / 4회차 진행



## 영남대학교 링크사업 캡스톤 디자인

# 복현1동과 청년을 링크(Link)

복현1동은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산업체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3년 동안 진행해 왔다.

매년 청년들은 복현1동과 재생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올해도 10명의 학생들이 복현1동을 알리기 위해 마을 상점 리플릿과 마을스토리를 활용한 굿즈(텀블러, 조명, 티코스터)를 제작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마을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기간: 2022. 3월 ~ 6월(3개월)

타인의 삶을 작품으로 남기다!

# 복현타작(他作)Ⅲ



복현타작(他作)은 ‘타(他)인의 삶을 작(作)품으로 만들다’라는 주제로 주민들이 직접 피란민촌 인물의 삶과 공간을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기록전시 문화콘텐츠를 생성하였다. 프로그램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0년 장미공원과 2021년 북구청 로비 사진전시회 개최, 포토에세이(2권) 발간, 다큐 영상 제작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올해는 이주를 앞둔 주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과 국악동요 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대구예술로(路)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기관협력 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피란민촌을 배경으로 제작된 ‘Last Land’ 다큐영상이 MBC ‘열린TV 희망세상’에 방영되었으며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여 동시집, 음원, 다큐영상 등의 다양한 결과물 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운 탄생을 기다리는 피란민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기록 작업에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협조를 바란다.

기간: 2022년 6월~12월(6개월간) / 8회차 진행



복현타작(他作) 활동영상



‘Last Land’ 다큐영상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 설립목적

- 도시재생 거점공간(어울림센터, 복잡소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근린 생활서비스 및 편의 제공
- 마을사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마을 기금 조성 및 활용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 사업내용

<b>마을식당</b> 건강한 식단과 엄마손맛이 가득한 마을식당	<b>마을카페</b> 마을스토리와 한옥을 특화시킨 마을카페	<b>마을상점</b> 로컬푸드 직거래, 식품, 생활용품 공동구매	<b>마을관리소</b> 청소, 방역, 거점공간 및 주차장 운영관리 등	<b>교육문화사업</b> 마을전시관 체험 주민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	--	--	---

## ▶ 협동조합 설립 및 진행경과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 외식창업부분 협동조합활동

##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기간 : 2022. 3월~12월 · 참여자 : 14명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요내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활동공간 마련 및 지원기관의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받아 향후 거점공간에서 창업할 아이템 모색 및 사회적기업가 육성

## ▶ 사업추진현황

육성단체선정 협약식(2022.3.7)

창업공간계약 및 공간정비(2022.4~5월)

창업팀실무회의의 13회교육 및 전문가컨설팅 16회

마을협동조합 현장탐방 및 컨설팅 2회

마을카페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4~5월/5회)

메뉴개발 실습 4회, 시식회 1회(5~8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9월)



##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가입 안내

복현1동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근린생활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조합원 또는 회원 가입 시 로컬푸드 · 생활용품 공동구매, 회원 할인혜택, 마을공동체 교육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각종 행사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 대상 :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복현1동 주민, 생활권자
- 조합원 가입 안내 : 가입 방법 - 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 후 출자금 납입(1구좌 10,000원, 기본 10구좌 이상)  
조합원 권리 - 총회 의결권 부여
- 일반 회원 : 가입신청서(가입비 없음)
- 가입문의 : 053-939-3550(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2022년 복현 도시재생 청년 서포터즈

# 발로 뛰고 직접 쓰다.

복현1동 도시재생 청년서포터즈는 2022년 처음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복현1동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함께 복현1동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마을 공동체사업 홍보 활동을 위한 청년 활동가 양성 및 뉴스레터 제작을 진행하였다. 청년 서포터즈가 복현동 마을 축제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의 뉴스레터를 기획 및 편집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이론과 실습, 현장취재를 진행하여 청년 활동가의 역량을 키우고 도시재생의 의의를 알렸다. 또한 발간된 뉴스레터의 홍보 및 배포도 서포터즈가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기간: 2022년 9월 16일~10월 21일

## 청년 서포터즈 뉴스레터 제작 후기



기자 송세연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복현동이라는 마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지만, 어느새 청춘의 기억들이 곳곳에 묻은 추억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을 기회로 마을 축제에 참여하여 현장 취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구석구석 곳곳에서 자신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복현동에서의 열정을 가슴에 채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기자 강준영

서포터즈의 일환으로 복현1동에서 열린 어울림 마을축제를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할 수 있어 너무 영광이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취재이기에 실수도 많이 했고 어려움에도 많이 부딪혔지만 편집장님, 서포터즈 분들 그리고 관련되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취재와 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기회와 추억을 남겨준 복현동이 앞으로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자 최정만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현장 취재 하는 걸 도와주시고 또 취재라는 처음 하는 경험에 처음에 낯설고 어색했지만 복현동 마을 주민들께서 열심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센터장님, 직원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피드백을 열심히 해주셔서 복현동 마을 취재 기사를 잘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복현1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복현동 마을 주민께 감사합니다.